

■ 등산하면서 역사 속으로

금오산(金烏山)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금오산은 경북 구미시 금릉군 철곡군 사이에 있는 명산이다. 금오산은 태산준령과 심산유곡에 속하는 산은 아니나 최고봉은 해발 976m의 고봉이다.

낙동강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에 경부선 철도를 옆에 두고 국토와 경부고속도로의 옆에 우뚝 솟았다.

산 이름이 금오산이라고 불리워진 까닭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석양 노을에 비치는 햇빛을 받으면서 까마귀떼가 서쪽으로 금오산을 향하여 날아갈 때 검은 까마귀가 황금빛이 되어서 마치 금까마귀처럼 되었기 때문에 산과 금까마귀를 연관지어 금오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금오산의 등산 시발은 구미역에서 부산방향 오른쪽 포장도로가 금오산 주차장까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트레킹하는 방법으로 4k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 계곡에 일선 김씨 사당과 둘레 5km 정도의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는 보트놀이를 할 수 있는 유원지도 되고 농경지 관개용 저수지 역할도 함으로 자연 경관과 어울어진 다목적 저수지이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왼쪽 산 봉우리 정상봉에는 팔각 정자가 서 있는데



여기서 굽이치는 낙동강을 조망하고 구미전자공단 산업을 바라볼 수 있다.

금오산 주차장에 도착하면

산 정상으로 오르는 의통길이 나온다. 이 곳에서 걸어서 오르든지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까지 거리를 2/3 정도는 단축할 수 있다.

케이블카가 가까운 곳에는 금오산 관광호텔이 있다.

이 호텔은 구미출신 재일동포가 지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인가는 이 곳 호텔에서 유숙할 것을 예정하고 박대통령이 사용 할 방은 처음 부터 정하여 놓고 다른 투숙객에게는 공개를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 예측이 맞아서 박대통령 가족이 이 곳에서 유숙하고 아침에 금오산 금오폭포까지 올라가서 폭포 주위에 깨어진 소주병 조각을 주면서 자연보호를 하자는데 뜻을 펼쳐서 우리나라 자연보호현장이 선포된 시발점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3·1절에 즈음하여

□ 東雲 권혁용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辛卯年 3月, 1919년 3·1운동이 전개된지 92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한편 한일합방이 된지 101년이라는 수치스러운 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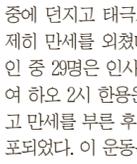
3·1절 : 4대 국경일의 하나, 3월1일이다. 우리민족이 1919년3월1일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관헌과 싸워 많은 피를 흘렸던 날이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로 정하였다. 이 날에는 정부에서 기념식을 베풀어 순국선열들을 추모, 애도 하는 무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베풀었다.

3·1운동: 1919년 3월1일을 기하여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운동, 일명 기미독립운동, 한일 합방이후 일본의 부당한 정치를 놓고 다른 투숙객에게는 공개를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 예측이 맞아서 박대통령 가족이 이 곳에서 유숙하고 아침에 금오산 금오폭포까지 올라가서 폭포 주위에 깨어진 소주병 조각을 주면서 자연보호를 하자는데 뜻을 펼쳐서 우리나라 자연보호현장이 선포된 시발점이 되었다.

피압박 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나 우리민족도 이에 자극을 받아 독립을 바라는 기운은 갈수록 높아졌다. 이리하여 비교적 일본의 손이 미치지 않은 외국에서부터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중국 상해에서는 여운형, 김철, 김규식 등이 협의하여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하게 하고, 미국에서는 안창호, 이승만, 정한경 등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동휘 등은 연해주 지방에서 활약하였다. 1919년 1월22일 고종이 별안간 세상을 떠나자 일본사람들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온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가 일층 부채질 하였다. 그리고 일본 도쿄(東京)의 우리 유학생들은 비밀리에 조선독립청년단을 조직하여 전위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1919년 2월8일 간다구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학우회 총회라는 이름으로 유학생을 모아 놓고 이광수가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전권귀국 할 것을 결의하고 국내에 돌아와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3월 1일에 일어난 거족적인 총 길기에 합류하였다. 국내에서는 손병희를 대표로한 33인이 주도하여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대표들이 3월1일 정오에 탑동공원에 모여 육당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장소가 변경되었다. 1919년 3월1일, 아침부터 탑동 공원은 45천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정오를 울리는 오후(午砲) 소리가 울리자 정재용이 8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니 학생들은 모자를 공중에 던지고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한편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은 인사동 명월관 지점에 모여 하오 2시 한용운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후 일본 경찰에 자진 체포되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3월1일에 개성, 평양, 진남포, 선천, 안주, 의주, 원산, 함흥, 대구를 비롯하여 황주, 수안, 곡산 등에서 일어났고, 다음날 부터는 다음 날 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와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결국 이 거족적인 운동은 일본의 무력 약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死傷) 또는 투옥된 채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온 민족이 글자 그대로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일본과 항쟁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정신을 새로 인식케 하였고, 이후 두근두근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를 3·1운동에서 찾게 되었으며 훗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 운동을 계기로 우리민족을 아민족 취급하던 종래의 무단정치를 완화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정오를 울리는 오후(午砲) 소리가 울리자 정재용이 8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니 학생들은 모자를 공중에 던지고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한편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은 인사동 명월관 지점에 모여 하오 2시 한용운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후 일본 경찰에 자진 체포되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3월1일에 개성, 평양, 진남포, 선천, 안주, 의주, 원산, 함흥, 대구를 비롯하여 황주, 수안, 곡산 등에서 일어났고, 다음날 부터는 다음 날 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와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결국 이 거족적인 운동은 일본의 무력 약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死傷) 또는 투옥된 채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온 민족이 글자 그대로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일본과 항쟁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정신을 새로 인식케 하였고, 이후 두근두근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를 3·1운동에서 찾게 되었으며 훗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 운동을 계기로 우리민족을 아민족 취급하던 종래의 무단정치를 완화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정오를 울리는 오후(午砲) 소리가 울리자 정재용이 8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니 학생들은 모자를 공중에 던지고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한편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은 인사동 명월관 지점에 모여 하오 2시 한용운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후 일본 경찰에 자진 체포되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3월1일에 개성, 평양, 진남포, 선천, 안주, 의주, 원산, 함흥, 대구를 비롯하여 황주, 수안, 곡산 등에서 일어났고, 다음날 부터는 다음 날 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와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결국 이 거족적인 운동은 일본의 무력 약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死傷) 또는 투옥된 채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온 민족이 글자 그대로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일본과 항쟁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정신을 새로 인식케 하였고, 이후 두근두근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를 3·1운동에서 찾게 되었으며 훗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 운동을 계기로 우리민족을 아민족 취급하던 종래의 무단정치를 완화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정오를 울리는 오후(午砲) 소리가 울리자 정재용이 8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니 학생들은 모자를 공중에 던지고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한편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은 인사동 명월관 지점에 모여 하오 2시 한용운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후 일본 경찰에 자진 체포되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3월1일에 개성, 평양, 진남포, 선천, 안주, 의주, 원산, 함흥, 대구를 비롯하여 황주, 수안, 곡산 등에서 일어났고, 다음날 부터는 다음 날 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와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결국 이 거족적인 운동은 일본의 무력 약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死傷) 또는 투옥된 채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온 민족이 글자 그대로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일본과 항쟁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정신을 새로 인식케 하였고, 이후 두근두근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를 3·1운동에서 찾게 되었으며 훗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 운동을 계기로 우리민족을 아민족 취급하던 종래의 무단정치를 완화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권부장(12) 권영섭



수필 정월대보름의 추억

□ 권태 하(작가, 검교공파, 33세)

내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에는 조선왕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 때까지 국왕이 친필로 지냈던 선농단(先農壇)이라는 국가사적(史蹟)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종3년에 선농단을 설립하고 이후 성종 임금을 비롯하여 여러 임금이 선농단에 행차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매년 입춘 뒤 첫 해(亥)일에 국왕이 왕세자와 백관을 이끌고 친히 선농단에 나와 그해 온 나라에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선농제를 지내고 국왕과 세자, 그리고 영의정 등이 평소 생기를 잡고 요새말로 밭을 가는 시범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그날 선농제향에서 쓴 소의 머리와 뼈 등을 고와서 밥을 말아 제향에 참여한 제관과 백성들이 함께 먹은 음식을 '선농탕(先農湯)'이라 했던 것이 곧 '설렁탕'이다.



대추 꽃망이나 잿을 넣어 밥을 지어 바깥에 두어 차게 한, 찬밥으로 먹었던 기억이며, 성씨가 다른 집의 오곡밥을 세 번씩 나눠 먹으며 그해 운수가 대통한다고 하여 입학시험 치던 해에는 동네에 다당이 별로 없어서 윗마을 고모네 집에 가서 먹고 온 기억도 난다.

선농탕과 더불어 아홉 가지 나물도 먹어야만 하고 호도나 땅콩, 잿, 밤 등 껍질이 딱딱한 것을 깨물어 딱! 하는 소리가 3번 크게 나야만 더위귀신과 액귀가 놀라서 도망을 간다고 부럼 깨문대를 큰소리로 북장하며 부럼을 깨문 추억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오르면 온 식구가 마당에 나와 옥토끼가 딱딱이를 쫓는다는 달을 보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곤 했던 기억도 난다.

오곡밥과 더불어 아홉 가지 나물도 먹어야만 하고 호도나 땅콩, 잿, 밤 등 껍질이 딱딱한 것을 깨물어 딱! 하는 소리가 3번 크게 나야만 더위귀신과 액귀가 놀라서 도망을 간다고 부럼 깨문대를 큰소리로 북장하며 부럼을 깨문 추억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오르면 온 식구가 마당에 나와 옥토끼가 딱딱이를 쫓는다는 달을 보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곤 했던 기억도 난다.

농자천하지대본이었던 우리나라는 이미 신라 때부터 입춘 때 선농(先農), 입하 때 중농(中農), 입추 때 후농(後農)이라 하여 농사철기를 매우 중히 여기고 국왕이나 민간이 절기행사에 적극 참여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선달 그믐날과 정월대보름 전날 밤은 집안에 불을 끄면 안 된다하여 온 집안에 초롱불을 환하게 밝히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억지로 잠을 잠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썹이 진짜로 하얗게 되어 깜짝 놀라서 만져보면 나보다 늦게 잠든 고모나 누나가 나를 놀리려고 하얀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이어서 나도 복수한다고 누나 신발을 숨겨 애를 먹인 일도 있다.

정월대보름이 대략 입춘 후 첫 돼지날(亥日)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논둑이나 전방 둑에 불을 붙이는 쥐불놀이를 했던 것도 액막이를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곡식을 축내는 쥐를 쫓는 의미와 함께 벼멸구 등 논둑에 기생하는 해충 알들의 태워버리고자 그랬던 것도 같다. 보름 전날 낮에 온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오곡밥을 해 먹었는데 찹쌀과, 차좁쌀, 찰수수, 콩, 팥 오곡에 밥과

보름날 아침,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불러 그쪽에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기"라고 더위팔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누나나 막내고모는 얼마나 영악스럽던지 나는 한번도 더위를 잡으려는 뜻 말고 책보를 옆구리에 끼고 학교 가는 신작로에서 동네 친구한테나 겨우 내 더위를 팔았던 기억도 즐거운 추억이다. 이제 이러한 세시풍속도 우리세대로서 마감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추억해 본 것이다.

실천하는 환경지도자 권지섭 사장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하며 신 성장동력이라고 부르며 따라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표명한 이때,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환경산업 강국 도약을 목표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 제도적 도약기반을 마련했다.

으로 환경운동은 "백마디 구호보다는 쓰레기를 한번 줌는 행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보존을 위한 생활수칙으로 ①음식을 자신이 먹을만큼만 선택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야한다. ②자신의 현안말은 쓰레기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③옷장 비우기, 가구마다 옷장을 열면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 유행이 지난 옷이 옷장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옷과 베타이 등을 깨끗이 세탁해 친인척에게 물려주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며, '언행일치'로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그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오래 전부터 환경운동에 노력을 기울이며 꾸준히 전개해 온 이가 되었다. (주)시흥기후백화점 재활용사업부 대표 권지섭(62, 봉화, 북야공파 34세, 본회 운영위원). 그는 오늘도 환경을 위해 뛰고 있는 실천하는 환경지도자다. 현 한나라당 중앙위 환경분과 부위원장

으로 환경운동은 "백마디 구호보다는 쓰레기를 한번 줌는 행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보존을 위한 생활수칙으로 ①음식을 자신이 먹을만큼만 선택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야한다. ②자신의 현안말은 쓰레기통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③옷장 비우기, 가구마다 옷장을 열면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 유행이 지난 옷이 옷장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옷과 베타이 등을 깨끗이 세탁해 친인척에게 물려주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하며, '언행일치'로 '정도의 길'을 걷고 있다.

권오득 한전대구경북본부 영주지점장



권오득 대구경북본부 영주지점장(51, 동정공파 35세)은 투철한 쪽의돈목으로 문사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7일 대구경북본부 영주 지점장으로 승진되었다.

업하고 이어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했으며, 서대구지점 및 경북지사의 배전운영부장을 거쳐, 영주지점 고객지원팀장, 동 청송지점장, 대구경북본부 판매기획처 배전총괄팀장에서 영주지점장으로 승진되어, 현 경북지역 한전 전기발전전에 크게 헌신하고 있다. 가정 슬하에는 신정숙(50세) 여사와 2녀(현미, 지민)를 두고 화북면 가정을 이루고 있다. <권혁세 기자>

7일 대구경북본부 영주 지점장으로 승진되었다.

업하고 이어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했으며, 서대구지점 및 경북지사의 배전운영부장을 거쳐, 영주지점 고객지원팀장, 동 청송지점장, 대구경북본부 판매기획처 배전총괄팀장에서 영주지점장으로 승진되어, 현 경북지역 한전 전기발전전에 크게 헌신하고 있다. 가정 슬하에는 신정숙(50세) 여사와 2녀(현미, 지민)를 두고 화북면 가정을 이루고 있다. <권혁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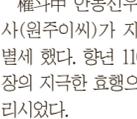
권기술 전 국회의원 별세



권기술 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울산출신으로 15·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울산, 울주지구당위원장, 정치개혁특위한나라당 국회관계법소위원회, 국회미래전략특별위원장, 제15·16대 의정·입법활동최우수의원선정, 남여평등 정치인상, 새천년정치인상 등을 수상 했으며, 또한 언론기관의 15대 의정활동 평가에서 상임위 출석 1위로 뽑혔으며, 상임위에서, 무려 200여 개의 정책질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3일장으로, 24일 선영에 안장했으며, 유족으로서는 이옥자여사에 3남 2녀(성욱, 성한, 성호, 희정, 희재)씨가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권두갑 안동신우회장 자당 이명흥 여사 별세



권두갑 안동신우회장의 자당 이명흥여사(원주이씨)가 지난 1월 13일 노환으로 별세 했다. 향년 110세 명흥여사는 두갑회장의 지극한 효행으로 유복하게 천수를 누리시었다.

지난 16일 4일장으로 두갑회장의 손자 오준차(KAIST 교수(공학박사) 등 80여명의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안동시 풍산을 막곡리 선영하에 권정현공(권두갑회장의 부친)과 합함으로 안장 되었다.

안동농협광석지점장 모친 별세

지난 1월 25일 안동의료원에서 권명순 안동농협광석지점장 모친 차(順)여사(합

기증

▲ 권영호씨(안동, 龍巖先生文集編纂委員會(山東齋)가 지난 2월 9일 분회에 「國譯龍巖先生文集」1권을 기증해 왔다.

성원에 감사합니다

- 회장단회비
 - ▲ 권영혁(부회장) 100만원
 - ▲ 권태석(부회장) 100만원
 - ▲ 권영상(감사) 100만원
 - ▲ 권오영(부회장) 100만원
 - ▲ 권순택(부회장) 100만원
 소계 500만원

- 운영위원 회비
 - ▲ 권오성(평택) 20만원
 - ▲ 권영구(화성) 10만원
 - ▲ 권정택(상주) 10만원
 소계 40만원

합계 540만원

양 박씨)가 노환으로 별세 했다. 향년 82세. 28일 4일장으로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남원 권술용씨와 합함으로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선영에 안장 되었다.

마포종친회 3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3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솔실령당) :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⑥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공덕역거리→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우가촌(실령당)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335-1085, 010-3796-6980

2011년 3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稅務士 權 九 文 事務所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보보스텔 208 호
TEL:2066-9741~4 / H.P : 011-307-2443 FAX : 2066-9745